

해외신간



▲자신의 환영(자네트 가초 지음)= 티벳어로 깨달은 사람을 뜻하는 '가초'. 이 호칭을 받은 사람들의 수행관을 엿볼 수 있는 (자신의 환영(Aparitions of Self: The Secret Autobiographies of a Tibetan Visionary))이 출간됐다.

티벳 문학에 나타난 '가초'를 분석하고 있는 정매 리파(1730~1798·티벳)의 (특별한 자서전)을 미국의 종교학 교수 자네트 가초(앨범스트 대학)가 번역한 것이다. 자네트는 이 책에서 동·서양의 문학과 철학에서 정된 '깨달음'을 비교하면서 티벳의 깨달은 자, 즉 '가초'의 초상을 그려내고 있다. Princeton University Press 간행 ISBN 0691009481



▲서양의 참여불교(크리스토퍼 킨 지음)= 서양불교의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인 참여불교 운동에 대해

금강한 불자가 있다면 (서양의 참여불교(Engaged Buddhism in the West))를 읽어 보

자한다. 60년대 이후 30여 년간의 미국 참여불교 운동사를 밀착 조명한 이 책은 미국 참여불교의 '역사' '인물' '교리' 등을 소개하고 있다. 특히 앨런 긴스버그, 잭 케로악 등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활동했던 미국의 불교 1세대인 '비트 제너레이션(Beat Generation)' 작가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또 이들이 반전, 반핵, 폭력, 평화, 인종·성차별, 노숙자, 에이즈 환자 등을 주제로 각 언론 매체에 발표했던 글도 수록했다. Wisdom Publications 간행 ISBN 0861711599



▲일상에서의 선(데이비드 스킵스 지음)= 우리의 가정, 우리의 정원을 평화로 가득 한 안식처로 가꿀 수 없을까.

(일상에서의 선(Simple Zen))은 선(禪)의 경지를 어떻게 현실에서 열거할 것인가를 선명적으로 보여 주는 책이다. 특히 '위빠사나'와 같은 불교의 수행법이 왜 서구인의 생활에 깊숙히 스며들고 있는가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도 반문 고사할 것 같다. 미국의 저명한 일러스트 화가 시안 에반스의 삽화도 책 읽는 즐거움을 배가시킨다. Bay Books 간행, ISBN 1579590586

오종욱 기자 (gobaou@buddhania.com)

불화서 민족의 역사 보다

성보문화재연구원 '한국의 불화' 4권 펴내

불화는 신앙과 경배의 대상 일뿐 아니라 역사와 함께 생성 발전해 온 민족의 전통회화이기도 하다. 하지만 환란과 인식부족으로 수많은 불화가 훼손 망실되고 있는 현실이다.

성보문화재연구원(원장 범하스님)은 95년부터 전국에 흩어져 있는 불화를 집대성하기 위해 조계종 본사를 중심으로 불화의 명칭, 봉안처, 조성연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번에 선보인 불화집은 13권(금강산 본말사편), 14권(선운사 본말사편), 18권(대학박물관 1-동국대편), 19권(대학박물관 2) 등 모두 4권이다. 13권은 조계종 17교구 본사인 금강산을 비롯 67곳의 본말사 92건 105점이 도판으로 수록돼 있다. 가장 주목되는 불화는 금강사괘불탱(1962년·보물 제1266호)과 안국사괘불탱(1728·보물 제1267호)이다. 금강사괘불탱은 석가모니불을 영락장엄한 보살 형상의 보살들로 표현하고 있다. 안국사괘불탱은 조선후기의 가장

금강산·선운사·대학도서관

소장 탱화 자세히 소개

뛰어난 화사로 손꼽히는 의겸스님이 조성한 수작으로 평가되고 있다. 실상사 약수암 아미타후불탱(1782년·보물 제421호)은 호남지역에서는 유일하게 남아 있는 목각탱으로 주존불을 따로 조성하여 끼워넣은 기법이 독특하다.

14권은 선운사를 비롯 말사의 불화 56건 66점이 실려 있다. 관심을 끄는 작품은 개암사 괘불탱(1749년·보물 제1269호)과 그 초본이다. 이 탱화는 의겸스님을 비롯 모두 13인이 조성한 것으로 화폭 크기만도 1m208cm X 868.5cm의 초대형으로 채색이 화려한 수작으로 손꼽힌다. 특히 의겸스님 친필로 알려진 초본이 전해지고 있어 학술적 가치도 높다.

이밖에 선운사 대웅보전에 장엄된 후불벽화는 규모가 가장 크고, 중앙에 티르자나불을 주축으로 좌우에



의겸스님을 비롯 13인이 조성한 개암사 괘불탱은 초대형으로 채색이 화려한 수작으로 손꼽힌다.

있어 도상학적으로나 신앙적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18권은 동국대 서울 및 경주캠퍼스에 소장된 장곡사 삼신불탱(1741년)과 석가모니후불탱(1748년), 아미타후불탱(1708년) 등 54건 58점의 불화를, 19권은 홍익대학교 수다사상장탱(1731년), 원광대와 고려대 감로탱을 비롯 각 대학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탱화의 도판을 각각 실고 있다. 성보문화재 연구원은 지금까지 16권을 발행했다. 내년 마곡사·법주사·국립박물관편 4권을 발행하는 것으로 1차분 20권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불화를 쉽게 이해하기 위한 (영어해설집)과 불화와 관련된 자료를 집대성하여 별책으로도 펴낼 예정이다. 값 각각 9만원. 김중근 기자 (gamja@buddhania.com)



베네딕트 금강산여행중 비경을 수채화에 담았다. 사진은 신계사 대웅전 앞 석탑과 석등.

독 베네딕트 수도자가 본 1925년 금강산의 사찰들

'수도자와 금강산' 김영자 옮김



1925년 6월 2일, 벽안의 한 수도자가 금강산 장안사를 찾았다. 55세의 독일인 수도자 베네딕트 노르베르트 베버가 바로 그다. 그가 금강산을 찾은 이유는 산속의 '불교성전'을 직접 보기 위해서였다. 앞서 금강산을 여행한 지리학자 비숍(1894년), 영국 외교관 켈벨(1889년), 학자이자 선교자인 제임스 케일(1889년), 영국인 기자 해밀턴(1903년)의 시각과는 천양지차였다.

켈벨이나 비숍은 "절의 무식한 승려들이 뜻도 모르면서 불경을 중얼거린다"라고 묘사했고, 해밀턴이나 케일은 불교와 기독교의 공통점을 찾아 기록했던 것에 반해 베버는 "있는 모습 그대로" 보기를 원했던 것이다.

(수도자와 금강산)(푸른숲)은 노르베르트 베버가 열흘간 금강산 여행을 마치고 쓴 여행기이다. "신비로운 불교 세계와 자연의 비경이 잘 어우러진 금강산 산행은 내게는 간절할 바램이었다"는 그의 글에서 알 수 있듯이 이 책은 금강산 사찰을 중심으로 한 불교에 대한 생각들을 적고 있다.

"세속을 떠난 수행자들의 거처가 되었던 이곳은 폐허로 변해 있었다. 한 인간으로서 자연스런 생활마저 극기하며 살아가는 그들의 모습을 대하면 불교에 대한 경이감을 금할 수 없다." "세속을 피해 깊은 정처에 싸인 금강산 암자들은, 잃어버린 천국의 한 부분으로 느껴졌다..." 그의 금강산 여행은 역석스럽다. 장기간의 산행으로 무릎의 통증을 느끼면서도 금강산의 비경을 찾아 구석구석 누빈다. 내금강 장안사를 시작으로 비구니 암자 보문암, 백화암, 표훈사, 정양사, 유점사를 거쳐 해금강 신계사로 발걸음이 이어지는 것이다.

김영자씨(독일 레겐부르크대 교수)가 번역한 (수도자와 금강산)은 이국인 수도자를 통해 75년 전 금강산의 생생한 모습을 글과 그림으로 살펴볼 수 있는 또다른 재미를 준다. 옛 기행문이 소중했던 것은 당시 상황을 생생히 증언하고 있기 때문만은 아니다. 옛날과 지금, 선인과 후인의 대화 통로를 열어 준다는 데도 있다. 값 6천5백원.

인도철학의 지향점 '해탈'

이거를 '인도철학사' 완역 출간

20세기 인도사상계를 대표하는 철학자 라다크리슈난(1888~1975)의 (인도철학사)(전 4권·한길사)가 완역 출간됐다. 인도철학과 사상의 진보를 이해할 수 있는 최고의 고전으로 평가받고 있는 이 책은, 인도철학자 이거를씨(40·동국대 강사)에 의해 우리나라에 처음 선보였다.

(인도철학사)가 명저로 손꼽히는 까닭은 베다·우파니샤드·바가바드기타 등 힌두교의 근본경전으로부터 자이나교·불교 등에 이르기까지 인도전통사상을 저자 특유의 시각으로 재해석하

고 있기 때문이다.

라다크리슈난이 말하는 인도철학의 끝은 해탈(解脱)이다. 전통마다 가는 길은 다르지만 궁극적으로 해탈을 지향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그는 인도철학을 구제의 도(道)이자 그 자체가 종교라 해도 무방하다고 말한다. 결국 인도철학은 단순히 삶을 해석하고 이해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의 전환을 지향한다는 것이다.

(인도철학사)가 명저로 평가되는 또 하나의 이유는 동서사상의 비교를 통해 인도철학을 세계무대에 올려 놓았다는



점이다. 전통적인 주석에서 탈피, 각 학파의 근본경전에 입각해 저자의 창조적 견해를 펼친 것이 그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다. 이는 그가 불교 힌두교 자이나교 등의 사상체계를 독특한 시각에서 도출해 낸 것에서 엿볼 수 있다.

라다크리슈난은 불교를 힌두교의 발전 또는 변형이라고 주장한다. 붓다의 절대 존재는 우파니샤드의 아트만 또는 브라흐만과 사상적 토대가 동일하다는 것이 그의 일관된 논리다. 또한 자이나교가 불교의 한 분파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오히려 단정한다. 자이나교의 창시자 바르타마나는 역사적인 인물이며, 불교와는 완전히 다른 독립적인 종교라는 것이다.

또 인도에서 불교가 자이나교에 심오한 영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는 실패했다고 적고 있다. 불교가 힌두교와 구별되는 자기 정체성을 상실해 '자연사(自然死)' 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값 9만원.

화제의 책

케이크와 부처

불교의 진리는 생활과 다르지 않다. 때문에 불교에서 배우는 삶의 지혜는 무공무진하다. 오히려 문제는 불교의 교리가 어렵고 실천하기 힘들다는 선입견에 있다. 불교에서 삶의 지혜를 배울 수 있는 수필집 (케이크와 부처)(불길)가 나왔다.

불교적 생활방식이 무엇인지를 가장 쉽게 알려주는 책이다. 나누어 먹어야 제맛인 '케이크'가 여러이 어려울 살아가야하는 현실을 상징한다면, 당연하게도 '부처'는 깨달음을 상징하는데, 이 둘의 만남은 곧 현실 속에서의 '깨달음'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책은 대승불교의 실천덕목인 육바라밀을 현실속에서 실천하기를 꼭직하게 당부한다. 글의 형식도 다채롭다. 아버지가 아이들에게 일러주는 형식, 직장 동료와 대화를 나누는 형식 등 다양한 형식으로 쓰여져 있어 생활 속에서 불법 실천이란 이런 것이구나 하는 점에도 독자들의 눈을 띄워 준다. 값 5천원.

케이크와 부처

김혜경 옮김

불교서 배우는 생생한 삶의 지혜

불교의 진리는 생활과 다르지 않다. 때문에 불교에서 배우는 삶의 지혜는 무공무진하다. 오히려 문제는 불교의 교리가 어렵고 실천하기 힘들다는 선입견에 있다. 불교에서 삶의 지혜를 배울 수 있는 수필집 (케이크와 부처)(불길)가 나왔다.

불교적 생활방식이 무엇인지를 가장 쉽게 알려주는 책이다. 나누어 먹어야 제맛인 '케이크'가 여러이 어려울 살아가야하는 현실을 상징한다면, 당연하게도 '부처'는 깨달음을 상징하는데, 이 둘의 만남은 곧 현실 속에서의 '깨달음'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책은 대승불교의 실천덕목인 육바라밀을 현실속에서 실천하기를 꼭직하게 당부한다. 글의 형식도 다채롭다. 아버지가 아이들에게 일러주는 형식, 직장 동료와 대화를 나누는 형식 등 다양한 형식으로 쓰여져 있어 생활 속에서 불법 실천이란 이런 것이구나 하는 점에도 독자들의 눈을 띄워 준다. 값 5천원.

◆금주의 베스트블서 10

책방 역사신문 집계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만행·하버드에서 화계사까지	현 각	열림원
2	금강경 강해	김용욱	통나무
3	종경	원성	이레
4	집착을 버리면 행복이 보인다	일 타	불교시대사
5	인효어록 100선	이영일	불교춘추사
6	죽음을 준비합니다	현 장 우 리	
7	무소유(개정판)	법정	법우사
8	방편개시	대성	아시아문
9	달리리마 예수를 말하다	류시화	나무심사람
10	산사의 미를 찾아서	박보하	다른 세상

도서 안내: (02)737-0695

▲일상에서의 선(Simple Zen)

선(禪)의 경지를 어떻게 현실에서 열거할 것인가를 선명적으로 보여 주는 책이다. 특히 '위빠사나'와 같은 불교의 수행법이 왜 서구인의 생활에 깊숙히 스며들고 있는가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도 반문 고사할 것 같다. 미국의 저명한 일러스트 화가 시안 에반스의 삽화도 책 읽는 즐거움을 배가시킨다. Bay Books 간행, ISBN 1579590586

오종욱 기자 (gobaou@buddhania.com)

행사기간: 1999년 12월 1일부터 2000년 1월 31일까지
본 행사는 주문 판매에 한합니다

2000년 맞이 축하 행사

도서출판 황금꽃
전화 02)711-4227,8 / 팩스 02)711-4229
E-mail : oshok@chollian.net

'티벳 死者의 춤(Bardo)' 오디오 북 특별 할인 판매

▶ CD(3장): 정가 50,000원 → 30,000원
▶ TAPE(90분 테이프 2개): 정가 28,000원 → 18,000원

180분

비르도에 대한 오쇼의 강의 테이프 5,000원씩 판매됩니다 (아울러 부속 1권)

비르도는 죽음에서 탄생까지의 중간 상태를 말하며, '중음기(中陰期)', 혹은 '아스트랄(Astral)'이라고도 한다. 이 비르도 명상은 비르도의 상태에서 일어나는, 이해할 수 없는 갖가지 현상들을 미리 들려 줌으로써 비르도의 과정에서 깨어 있을 수 있게 만들어 준다. 단 한 번 듣는 것만으로도 깨달음에 이를 수 있는 명상법이다.

단순히 듣는 이 명상법은, '티벳 사자(死後)의 서(書)'를 기초로 하여, 오쇼의 명상에 대한 현대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오쇼 삼과 죽음을 위한 학교'의 비트만(Vetman)에 의해 만들어졌다.

누구나 쉽게 들을 수 있다.

배경음악: 친아(Chirmayal)/번역: 최희상/목소리: 정두석

2,000명에게 오쇼 타임즈를 무료로 보내 드립니다

선착순 2,000명에게 격려간으로 발행되고 있는 '오쇼 타임즈 한국어판' 2호에서 7호 중에서 1권을 선택하시면 무료로 보내 드립니다. 지금 전화 주세요!

▶ 1호 - 제9의 분생(前生) / 2호 - 전생(前生) / 3호 - 최면 / 4호 - 요법과 명상 / 5호 - 관계, 유명한 20가지 요법 / 6호 - 아틀란티스의 비밀 뉴에이지와 명상 / 7호 - 티베트의 사제와 오쇼. 삶은 현해이다. 유명한 사람들의 별자리

2,000원을 돌려 드립니다

3,000원을 맞아, 전화나 팩스, E-mail로 2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시는 분들에게 2만 원 단위로 2,000원을 돌려 드립니다 (예: 20,000원 구입시 2,000원, 40,000원 구입시 4,000원...)

▶ 대상: 도서출판 황금꽃에서 제작된 전 품목비르도와 다이어리는 품목에서 제외됩니다
▶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상품 목록이 들어 있는 황금꽃 소식지 를 무료로 보내 드립니다

2000년, 인도 '오쇼 명상 휴양지' 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도서출판 황금꽃에서 판매되는 책이나 테이프들을 전화나 팩스, E-mail로, 1회 주문시 3만 원 이상 구입하는 분들 중 매년 4명씩 추첨하여 인도 푸나에 있는 '오쇼 명상 휴양지' 로 초대합니다. 추첨은 매년 4회(1월, 4월, 7월, 10월 16일)에 걸쳐 실시됩니다.

▶ 1차 추첨일: 2000년 1월 17일(월), 오후 5시

황금꽃의 책과 테이프들

책	가격	테이프	가격
개워는 빛에 있다	12,000	본래의 얼굴 (90분)	6,000
깨달음으로 가는 일곱 단계	12,500	심층의 꽃들 ()	-
누구도 죽지 않는다	12,000	명상법 (명상을 직접 하는 데 사용되는 배경음악)	-
제3의 눈을 찾아서	12,000	다이나믹(동적) 명상	13,000
무심(無心), 그 명왕의 꽃들	9,000	순달리(움의 울림) 명상	-
오쇼 전(傳) 타로(Tarot)	37,000	나디브라(비행) 명상	-
비의(秘)의 심리학	8,000	나타리(춤) 명상	-
명상 음악(음미음을 이완시켜주는 편안한 음악)	-	비르도 오디오 북(180분)	50,000
사랑하는 이의 정면	13,000	다이나믹/순달리 명상	6,000
바소의 연못	-	구리상카(대바바)기도 명상	-
C 만명의 꽃들	-	나타리(춤)명상	-
D 자유를 즐기는 꽃들	-	만달라(종성)명상(회전)명상	-
잠이 못 깬다	-	차크라(chakra) 소리 명상	-
신성무(神性舞)	-	차크라 호흡 명상	-
사랑하는 이의 정면	5,000	얼굴 차크리를 위한 소리	-
바소의 연못	-	만달라(종성)명상(회전)명상	-
만명의 꽃들	-	차크라(chakra) 소리 명상	-
자유를 즐기는 꽃들	-	차크라 호흡 명상	-
잠이 못 깬다	-	얼굴 차크리를 위한 소리	-
신성무(神性舞)	-	만달라(종성)명상(회전)명상	-
사랑하는 이의 정면	5,000	차크라(chakra) 소리 명상	-
바소의 연못	-	차크라 호흡 명상	-
만명의 꽃들	-	얼굴 차크리를 위한 소리	-
자유를 즐기는 꽃들	-	만달라(종성)명상(회전)명상	-
잠이 못 깬다	-	차크라(chakra) 소리 명상	-
신성무(神性舞)	-	차크라 호흡 명상	-
사랑하는 이의 정면	5,000	얼굴 차크리를 위한 소리	-
바소의 연못	-	만달라(종성)명상(회전)명상	-
만명의 꽃들	-	차크라(chakra) 소리 명상	-
자유를 즐기는 꽃들	-	차크라 호흡 명상	-
잠이 못 깬다	-	얼굴 차크리를 위한 소리	-
신성무(神性舞)	-	만달라(종성)명상(회전)명상	-
사랑하는 이의 정면	5,000	차크라(chakra) 소리 명상	-
바소의 연못	-	차크라 호흡 명상	-
만명의 꽃들	-	얼굴 차크리를 위한 소리	-
자유를 즐기는 꽃들	-	만달라(종성)명상(회전)명상	-
잠이 못 깬다	-	차크라(chakra) 소리 명상	-
신성무(神性舞)	-	차크라 호흡 명상	-
사랑하는 이의 정면	5,000	얼굴 차크리를 위한 소리	-
바소의 연못	-	만달라(종성)명상(회전)명상	-
만명의 꽃들	-	차크라(chakra) 소리 명상	-
자유를 즐기는 꽃들	-	차크라 호흡 명상	-
잠이 못 깬다	-	얼굴 차크리를 위한 소리	-
신성무(神性舞)	-	만달라(종성)명상(회전)명상	-
사랑하는 이의 정면	5,000	차크라(chakra) 소리 명상	-
바소의 연못	-	차크라 호흡 명상	-
만명의 꽃들	-	얼굴 차크리를 위한 소리	-
자유를 즐기는 꽃들	-	만달라(종성)명상(회전)명상	-
잠이 못 깬다	-	차크라(chakra) 소리 명상	-
신성무(神性舞)	-	차크라 호흡 명상	-
사랑하는 이의 정면	5,000	얼굴 차크리를 위한 소리	-
바소의 연못	-	만달라(종성)명상(회전)명상	-
만명의 꽃들	-	차크라(chakra) 소리 명상	-
자유를 즐기는 꽃들	-	차크라 호흡 명상	-
잠이 못 깬다	-	얼굴 차크리를 위한 소리	-
신성무(神性舞)	-	만달라(종성)명상(회전)명상	-
사랑하는 이의 정면	5,000	차크라(chakra) 소리 명상	-
바소의 연못	-	차크라 호흡 명상	-
만명의 꽃들	-	얼굴 차크리를 위한 소리	-
자유를 즐기는 꽃들	-	만달라(종성)명상(회전)명상	-
잠이 못 깬다	-	차크라(chakra) 소리 명상	-
신성무(神性舞)	-	차크라 호흡 명상	-
사랑하는 이의 정면	5,000	얼굴 차크리를 위한 소리	-
바소의 연못	-	만달라(종성)명상(회전)명상	-
만명의 꽃들	-	차크라(chakra) 소리 명상	-
자유를 즐기는 꽃들	-	차크라 호흡 명상	-
잠이 못 깬다	-	얼굴 차크리를 위한 소리	-
신성무(神性舞)	-	만달라(종성)명상(회전)명상	-
사랑하는 이의 정면	5,000	차크라(chakra) 소리 명상	-
바소의 연못	-	차크라 호흡 명상	-
만명의 꽃들	-	얼굴 차크리를 위한 소리	-
자유를 즐기는 꽃들	-	만달라(종성)명상(회전)명상	-
잠이 못 깬다	-	차크라(chakra) 소리 명상	-
신성무(神性舞)	-	차크라 호흡 명상	-
사랑하는 이의 정면	5,000	얼굴 차크리를 위한 소리	-
바소의 연못	-	만달라(종성)명상(회전)명상	-
만명의 꽃들	-	차크라(chakra) 소리 명상	-
자유를 즐기는 꽃들	-	차크라 호흡 명상	-
잠이 못 깬다	-	얼굴 차크리를 위한 소리	-
신성무(神性舞)	-	만달라(종성)명상(회전)명상	-
사랑하는 이의 정면	5,000	차크라(chakra) 소리 명상	-
바소의 연못	-	차크라 호흡 명상	-
만명의 꽃들	-	얼굴 차크리를 위한 소리	-
자유를 즐기는 꽃들	-	만달라(종성)명상(회전)명상	-
잠이 못 깬다	-	차크라(chakra) 소리 명상	-
신성무(神性舞)	-	차크라 호흡 명상	-
사랑하는 이의 정면	5,000	얼굴 차크리를 위한 소리	-
바소의 연못	-	만달라(종성)명상(회전)명상	-
만명의 꽃들	-	차크라(chakra) 소리 명상	-
자유를 즐기는 꽃들	-	차크라 호흡 명상	-
잠이 못 깬다	-	얼굴 차크리를 위한 소리	-
신성무(神性舞)	-	만달라(종성)명상(회전)명상	-
사랑하는 이의 정면	5,000	차크라(chakra) 소리 명상	-
바소의 연못	-	차크라 호흡 명상	-
만명의 꽃들	-	얼굴 차크리를 위한 소리	-
자유를 즐기는 꽃들	-	만달라(종성)명상(회전)명상	-
잠이 못 깬다	-	차크라(chakra) 소리 명상	-
신성무(神性舞)	-	차크라 호흡 명상	-
사랑하는 이의 정면	5,000	얼굴 차크리를 위한 소리	-
바소의 연못	-	만달라(종성)명상(회전)명상	-
만명의 꽃들	-	차크라(chakra) 소리 명상	-
자유를 즐기는 꽃들	-	차크라 호흡 명상	-
잠이 못 깬다	-	얼굴 차크리를 위한 소리	-
신성무(神性舞)	-	만달라(종성)명상(회전)명상	-
사랑하는 이의 정면	5,000	차크라(chakra) 소리 명상	-
바소의 연못	-	차크라 호흡 명상	-
만명의 꽃들	-	얼굴 차크리를 위한 소리	-
자유를 즐기는 꽃들	-	만달라(종성)명상(회전)명상	-
잠이 못 깬다	-	차크라(chakra) 소리 명상	-
신성무(神性舞)	-	차크라 호흡 명상	-
사랑하는 이의 정면	5,000	얼굴 차크리를 위한 소리	-
바소의 연못	-	만달라(종성)명상(회전)명상	-
만명의 꽃들	-	차크라(chakra) 소리 명상	-
자유를 즐기는 꽃들	-	차크라 호흡 명상	-
잠이 못 깬다	-	얼굴	